

사회 언어학적 시각으로 보는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

구은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1991년 12월 16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와 맞닿아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2,724,900km²)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이다. 2016년 기준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이 중 카자흐인이 63.1%, 러시아인이 23.7%, 기타 소수 민족이 13.2%로 집계된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며, 약 10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를 국어로 채택하고 러시아어를 민족 공용어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카자흐어는 튀르크어족 중 킵차크어에 속하며, 카를루크어에 속하는 우즈베크어나 오구스어에 속하는 투르크멘어와는 구별된다.¹⁾ 카자흐어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

1) 튀르크어족은 오구스(Oghuz)어, 킵차크(Kipchak)어, 카를루크(Karluk)어, 시베리아(Siberian)어, 오구르(Oghur)어, 아르구(Arghu)어로 나눌 수 있다. 카자흐어와 같이 킵차크어에 속하는 언어로는 노가이(Nogai)어, 카라칼파크(Karakalpak)어, 키르기스(Kyrgyz)어를 들 수 있다. 튀르크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집중되어 사용되며, 카스피해 동부와 서부의 텐산산맥 주변에서도 사용된다.

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몽골,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카자흐 민족들이 사용하며, 전체 약 1,500만 명이 구사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역별로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부 지역은 러시아어 사용률이 높지만, 우즈베키스탄과 마주하는 남부 지역은 카자흐어가 주로 사용된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전반에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2030’, ‘카자흐스탄 2050’ 등과 같은 장단기 사회경제발전 계획에서 카자흐어의 발전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어의 확대가 언어적 소통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새로운 언어 정체성을 생성하는 언어 정책은 국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 정책을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언어 사용과 언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언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많은 탈식민지 국가들은 독립 이후 기존에 억압받았거나 등한시되던 토착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고, 제국주의 언어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을 공용어의 위치로 강등시킨다. 새로운 지도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적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와 단절하고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적 입지를 다져 나간다.²⁾

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한 후 구소련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이 바로 언어 정책이다. 발트 3국의 경우 가장 활발한 민족주의적 언어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시민권 취득 조건으로 토착 언어 시험을 채택하여 많은 토착어 비(非)구사자들의

2) Kolstø, P.(2003), «Nation-building and language standardisation in Kazakhstan», In S. Cummings (Ed.), Oil, transition and security in Central Asia. London: RoutledgeCurzon.

참정권과 경제 활동에 제약을 두었다.³⁾ 슬라브 국가인 우크라이나 역시 우크라이나어를 국어로 지정하면서 공공 분야,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된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로 대체하였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함으로써 소비에트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캅카스 3국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직후 토착 언어를 국어로 채택하여 토착민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언어적 러시아화의 정도 및 민족 구성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1989년 기준으로 각 국가에서 토착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68.7%, 투르크메니스탄 72%, 키르기스스탄 52.4%, 타지키스탄 62.3%로 집계되었다.⁴⁾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198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약 40%만 카자흐 민족이었고, 슬라브계와 유럽계의 카자흐어 구사 비율은 1% 이내에 불과했다.⁵⁾ 다시 말해 대다수의 국민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고, 정책 결정자 대다수가 카자흐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를 국어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과 국민의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소비에트 언어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현 카자흐스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 결정은 역사적 경험 및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소비에트 시기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시행된 언어와 민족 정책을 살펴보고, 독립 이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3) Ozolins, U.(2002), <Post-imperialist language situations: The Baltic states>, Proceedings of the World Congress on Language Policies 2002. Barcelona, Spain.

4) 카자흐스탄 통계청 누리집 www.stat.gov.kz

5) Dave, B. & Peter A.S.(2002), <Demographic and language politics in the 1999 Kazakhstan census>, National Council for Eurasian and East European Research.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카자흐어 위치와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소비에트 시기의 카자흐어

‘카자흐인의 땅’이라는 국명과 달리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며 약 90% 이상의 국민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데, 이는 소비에트 시기에 진행된 외부 민족 유입 및 고도의 러시아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차르의 통치를 받게 된 카자흐스탄은 1867년 러시아 행정 구역에 편입되었고 이는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붕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⁶⁾ 이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으로 재편성되었고, 1920년 현재의 카자흐스탄 영토는 자치 공화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초기 소비에트 지도자인 레닌(Vladimir Lenin)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며, 카자흐 민족을 비롯한 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언어와 문화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문해율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부터 스탈린(Iosif Stalin)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카자흐인의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 정책에 반발하는 카자흐인들이 대거 이주했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⁷⁾ 스탈린은 레닌과 달리 소비에트적 정체성 발전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언어문화적 소비에트화를 민족 정책의 기저에 두었다. 다시 말해 언어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소비에트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주의 연방의 국민으로 만들고자

6) 카자흐스탄은 당시 부하라, 히바, 코칸트한국(汗國)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카자흐 민족은 유목민 생활 양식과 문화를 지니며 광활한 초원(steppe)지역을 자유로이 오갔다.

7)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인들은 가축을 빼앗기고 정착 생활을 강요받았다. 이에 반발한 많은 수의 유목민들은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이주하였다. 또한, 1930년대 작가, 시인, 역사학자 등을 비롯한 많은 카자흐 지식인들이 스탈린의 대숙청 때문에 희생되었다.

한 것이다.

이를 이룩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언어 개혁과 교육 개혁이다. 먼저 1926년부터 1935년까지 기존에 쓰이던 아랍 문자가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다. 아랍 문자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접경 국가들이 사용하던 문자였고, 소비에트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세대의 문자를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통로를 차단하여 지식의 공백을 만들고자 하였다.⁸⁾ 이후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라틴 문자는 다시 키릴 문자로 바뀌었다. 러시아어와 같은 키릴 문자를 채택함으로써 러시아와 어휘적, 음운론적, 형태학적 유사성을 증가시켜 러시아어와의 친밀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1937년부터 ‘소비에트식 애국주의’가 강조되면서 러시아어가 모든 학교에서 의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940년대 종교 학교인 막타프(Maktab)과 마드라사(Madrasah)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약 90%의 학생들이 소비에트식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⁹⁾ 그와 동시에 토착 언어들의 중요성이 약화하면서 본격적인 언어적 러시아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는 빠르게 집단화, 세속화, 소비에트화되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 카자흐스탄에 많은 인구학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포로부터 정치범을 비롯한 범죄자들까지 다양한 민족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39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수가 카자흐인보다 많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8) Roy, O.(2007), 《The new Central Asia: Geopolitics and the birth of nations》, New York: NYU Press.

9) Crisp, S.(1999), <Census and sociology: Evaluating the language situation in Soviet Central Asia>, Cultural change and continuity in Central Asia, 84-123.

1950년대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소비에트 연방 전역의 비(非)러시아 학교들의 수업을 러시아어로 전환하는 등 러시아화 정책이 이어졌다. 타민족의 수는 점차 증가했으며 처녀지 간척 산업으로 많은 슬라브계 기술자 및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카자흐스탄의 다민족화는 정점을 찍게 되었다. 1959년 인구 조사에서 러시아인의 수가 42.7%로 집계되었으나, 카자흐인의 비율은 30%를 웃돌았다.¹⁰⁾ 러시아어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어를 알아야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¹¹⁾ 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및 문화 활동이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많은 부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가르쳤다.¹²⁾

러시아어 사용의 사회 경제적 이점 때문에 러시아어는 카자흐어보다 우월하고 진취적인 선진 언어라는 인식이 생겼고, 카자흐어는 지방 사람들이 쓰는 수준 낮은 언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성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카자흐어의 언어적 가치를 저평가하여 러시아어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카자흐어 사용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정체성을 가진 소비에트 국민을 양성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 1980년대 말 도시의 러시아 학교의 수는 72.2%인 반면 카자흐 학교는 10%에 불과했으며, 90% 이상의 도시 거주자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였다.¹³⁾

10) Dave, B.(2003), <The shrinking reach of the state: Language policy and implementation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In Jones-Luong, Pauline. (E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states and societies from Soviet rule to independenc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1) 잉클리스(Alex Inkeles)와 바워(Raymond Augustin Bauer)는 1959년 출판한 저서 <The Soviet Citizen>에서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국민의 신분 상승 욕구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국민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잉클리스와 바워는 많은 부모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노동자 계층에서 전문직으로 계층을 이동시키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인들은 공산당이나 공무원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반면, 러시아어를 못하면 직업의 선택에서 제약을 받았다.

12) 교육, 의료를 비롯한 모든 사회 보장 제도가 러시아어로만 지원되었다.

13) Fierman, W.(2006), <Language and Education in Post-Soviet Kazakhstan: Kazakh-Medium Instruction in Urban Schools>, Russian Review, 65(1), 98-116.

모든 민족과 언어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소비에트 언어 정책은 실제로 매우 불균형한 언어 사용을 가져왔고, 카자흐스탄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러시아화된 민족들로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독립 직전 1989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인의 비율은 39.7%로, 러시아인 37.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독립 이후의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3.1.에서 살펴보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는 국가 성립 및 언어 정체성 형성의 시기이며, 3.2.에서 살펴보는 2000년부터 현재(2017년)까지의 시기는 언어 발전 계획을 통한 카자흐어의 기능적 개선의 시기라 할 수 있다.

3.1. 지위 계획(Status Planning)¹⁴⁾: 국가 성립 및 언어 정체성 형성 (1989~1999)

카자흐어를 국어로 지정하고 그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카자흐인의 정치적 우위를 다지기 위함일 뿐 아니라 진정한 힘의 교체, 즉 러시아인에서 카자흐인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독립 초기 언어 정책의 목적은 국가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언어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언어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어의 선택은 곧 정체성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¹⁶⁾

14) 사회 언어학 용어로 언어 정책 시행에서 여러 언어들 중 어떤 언어를 공용어나 국어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Dave, B.(2007), 《Kazakhstan: Ethnicity, Language and Power》, London: Routledge.

카자흐어 지위에 관한 논의는 독립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1991년 독립 선언서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카자흐의 문화, 전통, 언어를 재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¹⁷⁾ 1993년에 카자흐스탄 헌법 초고가 발표되었고, 새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각 지방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 8월 30일 카자흐어가 국어로 공식 채택되었다. 헌법에는 모든 이들에게 언어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성별, 출신, 민족,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6년 발표된 법령에 따라 기존에 러시아 단어나 인물명으로 지칭되던 각종 기관, 도로 및 지리적 개체 등을 카자흐 단어나 인물명으로 교체하였다.¹⁸⁾

일련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97년에 카자흐스탄 언어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언어법 제4조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는 카자흐어이며, 모든 국민들은 국어를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다. 제8조에는 모든 관공서 및 국가 기관에서 카자흐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러시아어도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록 러시아어가 민족 간 공용어로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각종 정부 기관, 법정, 문화, 과학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었다.¹⁹⁾ 1999년에는 대중 매체와 교육 분야에서 카자흐어 사용을 장려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제18 조). 특히 대중 매체에서의 카자흐어 사용 강화로 많은 방송사에서 의무적으로 카자흐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카자흐 문화 및 전통을 소개하면서

16) Landau, J., & Kellner-Heinkele, B.(2012), <Language Politics in Contemporary Central Asia: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and the Soviet Legacy(International Library of Central Asian Studies)>, London: I.B. Tauris.

17) Fierman, W.(1998),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2), 171-186.

18) 예를 들면, 첼리노그라드(Tselinograd)는 아크몰라(Akmola)로, 그 이후에 다시 지금의 수도 이름인 아스타나(Astana)로 바뀌었고, 레닌(Lenin) 거리는 우정(Dostyk) 거리로 개명되었다.

19) 특히 카자흐스탄의 문화, 상업, 교육의 중심지이자 당시 수도였던 알마티는 1989년 약 23%의 카자흐인과 60%의 러시아인이 거주하였는데, 2009년 기준 80% 이상의 거리명, 기관명 등이 카자흐어로 교체되었다.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카자흐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수요가 높아 대다수의 카자흐어 방송이 심야 시간대에 방송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언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1학년까지 카자흐어 의무 교육 시행을 법제화함으로써 카자흐어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 기준 카자흐 학교 입학률이 51.4%에서 71.9%로 증가했고, 러시아 학교 등록률은 48.6%에서 27.5%로 감소하였다.²⁰⁾ 교육 분야뿐 아니라 각종 도로 표지판, 광고물, 상품 설명서 등의 모든 정보를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기재하도록 법령을 마련하였다.

제23조에서는 카자흐어 발전이 국가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특정 직업군은 채용 시 반드시 카자흐 언어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카자흐어가 더욱 경제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기존에 존재하는 카자흐어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독립 이후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인구학적, 민족학적 변동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수의 슬라브계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빠져나갔다. 1990년에는 약 9만 5천 명이 카자흐스탄을 떠났고, 1994년에는 그 수가 40만 명에 이르렀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카자흐스탄은 전체 인구의 12%(약 2백만 명)을 잃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을 떠난 사람들은 낮은 소득, 기본 생필품의 부족 및 열악한 생활 환경 등 경제적 어려움을 보편적인 이유로 꼽았지만, 무엇보다도 언어 정책을 포함한 민족주의적 정책 확대에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카자흐 이탈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20) Fierman, W.(2006), <Language and Education in Post-Soviet Kazakhstan: Kazakh-Medium Instruction in Urban Schools>, Russian Review, 65(1), 98-116.

이에 카자흐스탄은 부족한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카자흐인 인구 비율을 증가시켜 인구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몽골 등지에 거주하던 카자흐 민족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정착시키는 오랄만(Oralman) 정책을 시행하였다.²¹⁾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국외에 거주하던 약 50만 명의 카자흐 민족이 이주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 민족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자흐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카자흐 고유의 언어 및 문화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비(非)카자흐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93년도에 국가 수장 및 국가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이들의 카자흐어 실력을 검증한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다음 해 정부 부서 및 대통령 산하 기관에 고용된 이들은 카자흐인이 74.3%, 슬라브계가 22.9%, 기타 민족이 3.1%였다.²²⁾ 당시 민족 구성 비율에서 카자흐계가 44.3%, 슬라브계가 43%, 기타 민족이 12.7%임을 고려하면 언어적 제약이 카자흐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18명의 후보 내정자 중 5명이 카자흐어 구사 능력 검증에서 일찌감치 탈락하였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강력한 언어 정책 외에는 카자흐어의 위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며 극단적인 언어 계획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언어 능력 시험을 도입해야 하고, 카자흐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주장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이를 통해 당시 카자흐어를 둘러싼 국가 내부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21) '오랄만'이란 '돌아온 자들'이라는 뜻의 카자흐어로, 1991년 독립 이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및 기타 주변국에 거주하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카자흐 민족을 지칭한다.

22) Fierman, W.(1998),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2), 171-186.

3.2. 자료 계획(Corpus Planning)²³⁾: 언어의 기능적 발전(2000~현재)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의 사회 경제적 기능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이전 10여 년간의 언어 정책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러시아어를 사용하였고, 알마티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카자흐어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실제로 공공 기관의 경우 언어법에 따라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카자흐어를 업무에 사용했지만, 사기업의 경우 카자흐어 사용의 의무가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어가 쓰였다.²⁴⁾ 그래서 정부는 카자흐어의 기능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분야에서 쓰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언어 발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카자흐어의 소통 능력 향상, 문화적 측면에서의 러시아어 보존, 소수 언어의 발전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카자흐어를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어를 비롯한 기타 소수 언어의 보존 및 발전을 꾀하였다. 그 결과 카자흐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카자흐어 유치원 및 학교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카자흐어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사전 및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출판되었고, 약 100여 개의 국립 언어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국가 산하 기관에서의 카자흐어 사용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누리집에서도 카자흐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카자흐어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여 50% 이상의 정보가 카자흐어로 제공되었다.²⁵⁾ 동시에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위구르족, 고려인 등 소수 민족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3) 언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으로, 사전 편찬이나 문법의 통일, 새로운 어휘의 도입 등 기능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24) 다만 정부와 주고받는 문서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5)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Тілдер туралы негізі заң актілері》, Алматы: Юрист, 2014.

2011년 6월 정부는 두 번째 단기 계획(2011~2020)을 발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카자흐어의 발전과 공공 기관에서의 폭넓은 사용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며,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이 카자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국가의 통합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 방법론과 언어의 표준화에 투자를 집중하였고, 카자흐어 시험인 ‘카즈테스트(KazTest)’를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어를 대체할 새로운 카자흐어 단어를 만들어 현대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²⁶⁾ 특히 2011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뿐 아니라 영어까지 정규 언어 교육에 편입하여, 3개 국어 국민 양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영어 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²⁷⁾ 정부는 2020년까지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국민의 수가 15%를 넘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언어의 기능적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라틴 문자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2017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라틴 문자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 발행물, 서적 등이 라틴 문자로 대체될 것이며, 2017년 말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 하였다.²⁸⁾ 특히 2018년부터 중등 교육의 모든 교과서가 라틴 문자로 변경되며, 2025년까지는 키릴과 라틴 문자가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 대통령은 라틴 문자로의 전환은 실용주의적 결정이며,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라 강조하였다. 현재 전 세계 70%의 국가들이 라틴 문자를 사용하기에, 카자흐어를 라틴화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보 기술, 인터넷, 전자 자료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화,

26) 과학, 의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7) "The Trinity of Languages: Kazakh, Russian and English"

28) "Kazakhstan: President calls for switch to Latin alphabet by 2025"

<http://www.eurasianet.org/node/83206>(검색일: 2017년 5월 15일)

세계화에 발맞추어 통신 기술 분야에서 언어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구소련의 잔재를 정리하고, 새로운 독립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튀르크 국가들이 라틴 문자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이 튀르크권에 편입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발트 3국처럼 러시아어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아직도 주변의 많은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 관계에서도 러시아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며, 카자흐도 러시아와는 여전히 우호적인 정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다민족 국가인 만큼 민족 간 공용어로서의 러시아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현 카자흐어의 위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언어 정책은 카자흐어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어를 비롯한 소수 언어의 보존 및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카자흐어의 발전은 독립 국가 형성 및 새로운 정체성 부여, 그리고 카자흐인의 정치 사회적 세력 확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인구 조사에서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74%, 읽고 쓸 수 있다는 응답자가 62%로 집계된 바 있다.²⁹⁾ 언어 정책과 더불어 카자흐인의 비율도 증가하였는데 1989년 39.7%에서 2014년 65.5%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7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모두 사용되지만,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카자흐어는 민족 정체성과 민족 결속의 상징으로

29) Agency of Statistical Kazakhstan(2010), 《Population Censu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9》, Brief results. Astana.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지만, 러시아어는 민족 간 소통 언어로 노동 시장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제1의 언어로 여겨진다. 특히 도시에서는 러시아어가 주로 사용되며 러시아어를 모르면 구직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1997년 언어법에 의해 카자흐어가 공공 업무 및 특정 문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많은 사기업은 여전히 러시아어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³⁰⁾ 공기업 역시 정기적인 언어 시험을 통해 공무원들의 카자흐어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나 시험에 관련한 비리가 횡행하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³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가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소비에트 시기 형성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러시아어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언어로 인식됐던 반면, 카자흐어는 지방 사람들이 가족 간 사용하는 비공식적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다. 둘째, 여전히 많은 고위직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은 이들로, 카자흐어를 못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러시아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많다. 또한 카자흐어의 전문 어휘나 용어의 부족함을 이유로 많은 사람이 러시아어로 업무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³²⁾ 셋째, 카자흐어를 배울 동기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라이틴(David Laitin)은 탈소비에트 국가의 국민이 새로운 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공

30) 공기업, 사기업 모두 통계, 재정 및 기술 문서는 반드시 카자흐어로도 작성되어야 한다(카자흐스탄 언어법 제10조, 제14조).

31) Fierman, W.(2005), <Kazakh Language and Prospects for its Role in Kazakh "Groupness">, Ab Imperio, 2005(2), 393-423.

32) Koo, E.J.(201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of the Language Paradigms in Kazakhstan: The Kazakh Language from Cultural Repository to Added Valu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33) 예를 들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 민족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고용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빠르게 언어를 습득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오히려 민족 언어만 알면 불이익을 받는다(Laitin, 1998).

무원을 대상으로 카자흐어 실력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2003년 카자흐어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50%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러시아어의 중요성과 그 사용률이 매우 높지만, 카자흐어를 발전 시키고자 한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이 실패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발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카자흐어의 실용성이 증대되었다. 카자흐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카자흐어 구사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도 카자흐어가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여전히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카자흐어 전공자들을 고용하여 2개 국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자 한다.³⁴⁾ 카자흐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언어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그 입지가 넓어졌다고 평가된다.

둘째, 언어 정책의 영향으로 카자흐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증가하였다. 카자흐어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이 강조되면서 카자흐어 구사 능력이 카자흐스탄 국민의 애국심과 주인 의식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과거 러시아어를 모르는 것이 사회 경제적 차별의 주원인이 되었다면, 현재에는 카자흐어를 모르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카자흐어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작용하면서,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비(非)구사자들에게 ‘샬라 카자흐(Shala Kazakh)³⁵⁾’나 ‘만쿠르트(Mankurt)³⁶⁾’ 등의 오명을 씌우며 비난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4) 대부분의 사기업에 통번역 팀을 두어 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35) 샬라 카자흐(Shala Kazakh)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혼혈 카자흐인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삼고 카자흐어를 모르는 카자흐인을 낮춰 말할 때 쓰인다.

36) 만쿠르트(Mankurt)는 키르기스스탄의 작가 칭기스 아이트마토프(Чингиз Айтматов)의 책 《The Days Lasts More than a Hundred Years》에서 따온 용어이다. 만쿠르트는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린 사내의 이름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화된 카자흐인을 비판적으로 표현할 때 쓰인다.

비(非)구사자들은 카자흐어가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카자흐어가 비공식적이고 불필요한 언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카자흐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언어 정책이 새로운 언어적 이데올로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5. 맺는말

소비에트 시기의 언어 정책과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은 다민족 국민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국가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국민을 양성하는 데에 언어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과거 소비에트 언어 정책의 목적이 다언어, 다문화 국민을 러시아어 중심의 단일 언어권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은 카자흐어를 중심에 두되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간 지위 계획과 자료 계획을 통해 카자흐어의 상징적 위치를 향상하고 언어의 질적 발전 및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카자흐어의 발전을 주요 국가 발전 전략에 포함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그 결과, 카자흐어 사용자 수가 증가하였고 카자흐어 사용의 공간이 확대되었다. 현재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의 90%가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어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러시아어는 민족 간 소통 언어로써 경제, 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영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

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어와 기타 소수 언어들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동시에, 빠른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를 제3의 언어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정부가 언어를 정치적 도구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실용성을 지닌 자본이자 국제 사회에서의 생존 도구로 인식한다는 증거이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어와 영어 사이에서 카자흐어가 국어로서 제 역할을 할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되고 균형 있는 3개 국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카자흐어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하는 동시에 언어의 실용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보면 시장 경제의 발전, 다양한 사회적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개개인이 언어의 가치 부여 및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언어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온라인에서 카자흐어에 대한 자발적인 토론이 증가하였으며, 카자흐어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소비에트 시기처럼 국가가 언어적 이데올로기의 유일한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어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여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언어의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가치 향상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